

## 전통 본받고 전통 계승·발전 노력

교육기관 기능 되찾는 도내 3개 향교

데스크승인 2014.08.07 이윤주 기자 | yjhnb@jejunews.com

조선 후기 이후 문묘의 기능만 남은 향교이지만 현재는 사회 교화 및 전통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예절 교육 및 인성교육, 경전 읽기,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.

지난 1월 제주지역 3곳 향교는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'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향교·서원 만들기' 프로그램에 나란히 선정됐다. 제주향교의 '제주향교에서 놀멍, 쉬멍, 배우멍!'과 대정향교의 '서예교실', 정의향교의 '살아 숨 쉬는 향교'이다.

현재 제주향교에서는 '경전 논어', '서예교실', '경전 대학', '예절교육 및 인성교육', '중국어 기초', '우리소리, 우리가락, 가야금' 등 11개 프로그램, 대정향교에서는 '예절교육'과 '서예교육'이 진행되고 있다.

정의향교에서는 전패례 재현·전통놀이·전통 악기 등을 체험하는 '선비들의 사춘기 시절 체험', '인성교육', '한문·한글 붓글씨', '한자교실' 등이 이뤄지고 있다.

고남영 제주향교 전교는 "향교는 옛 성현들을 본받고 학덕을 기리며 전통을 계승·발전시키는 곳"이라며 "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, 도덕성 회복 등과 더불어 '잠자고 있는 향교'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"고 말했다.